

## 기독교 천주교 개신교 민주주의 공산주의 칼빈주의 자본주의

성경: 딤후2:15

지난 주 고성국 박사님, 기독교와 공산주의, 공산주의, 막스 베버,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고 박사님, 기독교와 천주교, 칼빈주의를 정확히 설명함

막스 베버: 칼빈주의에서 근대 자본주의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설명한다. 그런데 고 박사님이나 베버는 성경을 자 모르기 때문에 칼빈주의가 기독교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개신교이다.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칼빈주의가 문제를 일으킴을 지적하지 않았다. 오늘 < >, 천주교, 개신교, 기독교의 차이, 기독교와 자유 민주주의, 칼빈주의와 근대 자본주의, 그리고 칼빈주의 오류를 지적하려고 한다. 고 박사님의 훌륭한 강의를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성경적으로 구원의 문제를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설명의 시간을 갖는다. 강연은 너무나 훌륭하였다. 그런데 고 박사님처럼 칼빈주의 예정론에 빠져서 구원을 못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시간을 갖는다.

### 1. 공산주의란 무엇인가?

핵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혹은 적어도 양심이 있는 사람들: 인간은 부족하다. 연약하다. 우주와 세상을 보니 이 모든 것을 설계한 존재가 있다. 그 존재가 모든 사람에게 양심을 주었다. 그래서 최소한의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안다. 행동 규범, 정부, 법, 옳고 그른 것들을 판별하고 인간이 연약하므로 혁명을 통해 순식간에 모든 것을 뒤엎고 새로운 판을 짜서 유토피아를 만들려는 시도를 하려만 안 된다고 믿는다. 그래서 인간 역사를 통해 주어진 규범들에 문제가 있지만(인간이 연약하므로) 이것들을 단숨에 모두 고치는 것은 불가능하고 시간을 들여서 서서히 고쳐 나가야 한다. 이것을 보수주의라고 말한다.

칼 마르크스(1818-1883),(\*) 1848년 공산당 선언, 독일사람, 1849년 런던 망명, 죽을 때 까지 33년 동안 영국에 거함, 1867년 자본론 발표

마르크스의 주장: 하나님, 설계자 등은 없다. 인간은 선하며 스스로 유토피아를 건설할 능력이 있다. 그 일을 위해 급진적인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필요하다. 2500년 동안의 유럽 문명 즉 유대/기독교 문명을 타파하고 인간 스스로 유토피아를 건설해야 한다. 그러므로 유대/기독교는 아편과 같으므로 이 땅에서 이것을 몰아내야만 한다. 가정 파괴, 성 혁명, 기독교 부정, 하나님 부정  
그러므로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대척점에 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좌익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네모를 원이라고 하는 것이다.

### 1. 고성국 박사 강연(@): 기독교와 공산주의

#### 2. 기독교와 자유 민주주의

그러면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기독교는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고수할 수밖에 없다.

### 2. 고성국 박사 강연(@) 기독교와 천주교

기독교의 핵심: 중간에 목사나 신부나 교회나 성당이 끼면 안 된다.

구약 시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제사장이 중재자(priest)로 존재함

대제사장이 일 년에 한 번 속죄일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을 제치고 안으로 들어가 온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의 피를 뿌림, 중간 매개체가 존재함, 이것이 구약시대

신약 시대, 십자가 사건,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하나님께 직통 나아가는 길이 열림  
그래서 누구나 구원받은 사람은 제사장이 되는 전 성도 제사장 체계

그래서 제사장, 성전, 의식, 규례, 짐승 희생 등이 다 사라지고 목사, 예배당,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적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무리

그러나 승천 이후 채 60년이 지나지 않아 구약의 제사장 체계를 유지하려는 자들이 교회에 등장함. 제2장 니콜라당, 교회가 세속화되면서 정치와 결합하여 313년 밀리노 칙령, 기독교 인정, 실제로 황제가 교회의 주권자가 되는 국가 교회가 시작됨.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교황이 황제를 누르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천주교 체제가 서게 됨 (\*) 기독교와 천주교

천주교의 핵심: 중간 매개체가 있는 것이다. 교황, 마리아, 제사장, 성인들

이 시스템이 무려 1200-1300년 동안 중세 유럽을 지배함

이것은 기독교 아니라 교회교 혹은 천주교라 불린다.

이 시스템의 특징: 전체주의, 계급주의, 개인은 조직의 구성원, 교회를 통해 구원받는 것이다.

마틴 로이드 존스의 말: 마귀의 최대 걸작품

그런데 1517년 종교 개혁, 드디어 중간 매개체(교회나 제사장)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나가는

길을 재발견, 여기에서 개인이 가장 중요하다는 개인주의가 나오면서 자유 민주주의가 나온다.

기독교, 천주교, 개신교의 차이(\*), 기독교는 처음부터 기독교, 개신교가 기독교에서 나왔다.

자유 민주주의의 핵심은 무엇인가? 개인이다. 즉 개인주의이다.

### 3. 고성국 박사 강연(@), 개인주의

예수님의 말씀 마16:25-26,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개개인

마10:28

욥28:28, 주를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1:7,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19:23,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생명으로 이끄나니 그것을 지닌 자는 흠족히 지내고 해악으로 징벌을 받지 아니하리라.』

롬14:11-12, 기록된 바, 내가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겠고 모든 혀가 하나님에게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이처럼 우리 각 사람(every one of us)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계 보고를 하리라.

## 2. 기독교와 자유 시장 경제

그러면 기독교와 자유 시장 경제 즉 자본주의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막스 베버(1864-1920), 독일사람, 사회과학자(\*)

1904년 베버는 그의 아내 마리안네와 함께 3개월 간 미국을 여행하고 그 뒤에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집필함

1904년경의 미국, 미국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성경적인 시대, 재림 신앙

교파에 상관없이 성경대로 믿기를 갈망하는 성도들이 매우 많음

특히 침례교, 감리교가 다수이고 장로교는 많지 않다.

핵심 내용: 자본주의 정신과 칼뱅주의적 소명의식

소유욕, 금전욕, 망설이지 않는 영리 충동은 언제나 어느 곳에나 있었다.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것 이상의 재화를 취득하는 것, 즉 투기 자본주의, 약탈 자본주의, 식민지 자본주의, 기타 이것에 속하는 것은 화폐를 사용하는 모든 경제 구조의 고유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윤추구의 동기에 의해서 작동하는 모험가적 자본주의는 어느 시대에서, 어느 곳에서나 존재했다.

그러나 윤리적 측면에서 영리 추구를 긍정한 것은 자명한 일이 결코 아니었으며 어느 일정한 시대 이후 성립된 것으로 그것도 서구에서만 있었던 일이다. 이와 같은 사태가 생겨나기 위해서 서양의 시민계급은 어느 특정한 생활태도의 훈련을 받고 합리적이며 방법적인 노동을 도덕적 의무로서 받아들이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러한 생활 태도를 가져온 것이 바로 자본주의 정신이다. 자본주의 정신은 '돈벌이를 자신의 물질적 생활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삶의 목적 자체'로 여기는 소명 의식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자본주의 정신으로 인해 비로소 노동과 이윤추구 행위가 끊임없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금융적 생활과 저축 관념을 매개로 근대적 자본축적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베버는 자본주의 정신의 뿌리로 16, 17세기의 종교개혁과 금욕적인 프로테스탄트 윤리, 특히 칼뱅주의를 지적한다. 칼뱅주의는 인간의 운명은 태초로부터 정해진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직업노동과 부의 추구를 신의 섭리로 받아들일 때 구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욕욕과 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 신을 위해서' 부유해지도록 노동해야 한다는 청교도적 관념이 성립한다. 여기서 부의 추구가 사악한 것으로서 위험시 되는 것은 '게으른 휴식과 죄 많은 삶의 향락에 대한 유혹'일 경우에만, 즉 '근심 없이 안일하게 살기 위한 것일 경우'에 한정된다. 신을 위한 경우라면 부의 추구는 허용될 뿐만 아니라, 더 적절하게는 명령되는 바를 할 수 있다. 또한 그 부는 더욱 증식되어야 한다. 이윤추구에 대한 이와 같은 해석은 근대 기업가의 활동을 정당화했다. 즉 영리활동은 근대 기업가의 '소명'이 되었다.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800893&cid=41978&categoryId=41982>

요약: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의 정신>에서 그는 근대 유럽, 미국에서의 자본주의의 발생을, 프로테스탄티즘 특히 칼뱅주의의 교리하에서 금욕(禁慾)과 근로에 힘쓰는 종교적 생활태도와 관련시켜 설명하고 있다.

#### 4. 고성국 박사의 강연(@), 시장 경제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는 프로테스탄트 장로교 칼빈주의를 뜻한다.

이분이 객관적으로 칼빈주의가 무엇인지를 증언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자.

우리는 예정설을 믿지 않는데 이분은 모든 프로테스탄트들은 그렇게 믿는다고 생각함 여기에 교리적인 문제가 있다. 잠시 후에 설명을 할 것이다.

나는 겁이 났다. 두렵다. 이게 사실이다. 암흑의 상태이다. 카톨릭, 카톨릭은 오히려 쉽다. 겁먹을 필요가 없다.

선행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 늘 불안에 떨면서 청교도들 십계명을 지킨다. 율법 준수, 노동, 신용, 자본, 부 시장에 투자하면서 미국의 자본주의 시장을 만들어냈다.

여기까지가 사회과학자들이 내린 결론이다.

그러면 칼빈주의란 무엇인가? 칼빈은 무엇을 했는가? 교리적으로 무엇이 문제인가?

칼빈 당시의 세상, 천주교의 국가 교회 시대, 국가가 정해 주는 국가 교회에만 다녀야 한다. 당시는 세상이 천주교 세상, 천주교, 루터의 종교 개혁, 루터교, 헨리 8세의 수장령, 성공회 이런 세상에서 칼빈 역시 예수님의 신약 교회를 국가 교회로 보고 제네바에서 신정 정치를 시작하였다. 신정 정치란 독재 체제 이러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그는 이중 예정론을 주장함 (\*)

아무도 자기가 선택된 자임을 알 수 없으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 죽을 때까지 고민하고 고민하면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할 수 밖에 없다.

여기에서 Puritan이 나온다.

칼빈의 제네바에서는 십계명 준수, 안식일 준수, 춤, 음주 등 시민의 모든 권리 규제  
지키지 않으면 추방, 무서운 독재가 시행됨  
그래서 칼빈주의 5대 강령의 마지막은 Perseverance of the saints인데 원래 이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끝까지 끌어주신다는 것이 아니다. persevere는 인내하다라는 뜻이다.  
즉 선택받은 것을 알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 끝까지 인내하며 지켜야 한다.  
어느 면에서 100%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이것이 불가능함을 누구나 안다.  
그래서 다수의 청교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죽음  
Pilgrim's progress, 존 번연 천로 역정  
천국에 도착해야 죄의 짐이 풀린다.  
이러니까 금욕 실행, 열심히 일하니까 자본 축적, 투자, 자본주의 시장 경제 확립 일정 부분 맞는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따르면 교리적으로는 옳지 않다.  
끝까지 혹은 죽어 봐야 구원 여부를 아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칼빈이 말하는 이중 예정론을 말하지 않는다.

성경은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면 바로 그 순간 구원받음을 말한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다.  
엡2:8-10에 따라 선한 행위를 하게 된다.  
즉 선한 행위를 해서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아서 선한 행위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

결국 칼빈의 칼빈주의는 예정론으로 인해 더 이상 세상으로 전달되지; 못하고 그 뒤에 요한 웨슬리를  
중심으로 일어난 아르미니우스 주의에 의해 대체 되었다. 그래서 현 시대 전 세계 개신교회의 다수는  
칼빈주의가 아니라 아르미니우스 주의가 대세이다. 침례교 포함  
핵심,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다. 구원받은 사람, 선한 행위  
그중 하나 살후3:6-12,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의무, 침례교가 가장 많은 미국의 특징, 이것이 자본주의

대한민국 장로교 장자 교단, 칼빈주의로 인한 율법주의(초기의 미국 선교사들, 교리적으로는 그렇다)